

3 갈뱅의 인간론 : 「기독교 강요」 (1559)를 중심으로

김선희 목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Th. D. in Min. 과정, 조직신학

1. 서론

성경은 피조물 중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지침제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가르침은 기독교 인간론의 심장부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 1:27)라는 말씀은 인간의 영적, 도덕적 순결성만을 묘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 이상의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창조물과 구별되게 세우신 것은 사람이 매우 특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이 최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만 말하지는 않는다(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오히려 포괄적 존재(the totality of

his existence)로 부각시키려는 것이 그 중심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성경의 선언은 인간은 그 구성 전체가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반영시키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¹⁾

그러나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도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신학적, 철학적 중심 주제를 이룬다고 본다. 그 이유는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야기되는 엄청난 변화와 인간의 무모함을 드러내고 있는 핵전쟁의 위협, 최근의 예측할 수 없는 테러와의 전쟁들은 우리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뢰만(H. Pöhlmann)은 “현대의 얼굴 없는 대중 인간은 생화학적 수단을 통해 끊임없이 탈인격화되는 미래 인간의 전조이다.”²⁾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개성을 잃어 가고 있는 대중 인간은 축소된 지능을 가진 감정에 의해 지배받는 인간 유형”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파괴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 상태, 인간의 생명을 잔인하게 말살하는 행위 및 AIDS 감염 등으로 죽어 가는 소말리아나 에디오피아 어린이 등등 모순투성이의 현대 사회는 한마디로 일그러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좀더 극단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의 인간성은, 탈인격화시키는 세속구조에 의해 위협받기 때문에 인간은 두뇌를 지닌 동물로 추락하거나 진화의 부스러기로 끝나 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 만약 동물 인간적인 잡종을 배양하는 것이 돈벌이가 된다면, 세상이 그것마저도 할 개연성이 있다는 징조가 오늘날 존재하기 때문이다.”⁴⁾

그렇다면, “인간이라 불리는 이 모순적인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그

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은 그 자신을 어떻게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가?”⁵⁾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시대의 일반적 인간상의 징후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진정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표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종교개혁자 장 칼뱅(John Calvin, 1506-1564)의 하나님 형상론에 대한 이해를 고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칼뱅은 다른 어느 신학자보다 성경해석에 충실했다. 그는 신학적 인간 이해의 근거로써 「기독교 강요」⁶⁾와 그의 「聖經註釋」⁷⁾을 통해 기독교 인간 이해의 특징을 잘 해석해 주고 있다.

칼뱅의 인간론에 있어 그 중심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그의 하나님 형상관의 시각에서 인간 이해의 특징을 조명하고 분석해 나갈 것이다. 칼뱅의 인간관에 대해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인간 안의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지는가? 둘째,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적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는가? 셋째, 타락의 생태 속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어 있는가? 넷째,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에 끼친 영향력은 무엇인가? 다섯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과연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본 논문을 통하여 ‘칼뱅의 하나님 형상관’을 연구해 나가면서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Antony A. Hoekema, *Created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118쪽.
2. Horst G. Pöhlmann, *Abriß der Dogmatik*, 이신건 역, 「교의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0), 216쪽.
3. 위의 책, 215쪽.
4. 뢰만, 「교의학」, 216쪽.

5. André Biéler, *L'humai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1쪽.
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 외 3인 공역, 「기독교 강요」(1559)(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이후부터 「기독교 강요」를 Inst.로, 1권 1장 1절을 I. i. 1.로 표기하기로 한다.
7. John Calvin, 「聖經註釋」(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2).

2. 창조된 인간

창조기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만물의 창조주로 나타나신다. 갈뱅은 우주와 인간이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의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무(無)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⁸⁾는 그 사실로써 창조물에게 각각의 존재성을 부여하신, 존재 그 자체로의 영원성을 스스로 계시하셨다.⁹⁾

갈뱅에 따르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완전했다. 즉,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 자신 가운데 어떤 분열이나 분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최초의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특히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서 살았다.

갈뱅은 그 최초의 인간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부여된 어떤 것, 그것으로써 인간이 완전성과 존엄성을 지니는 어떤 것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그 인간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을 닮은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된 것이며 신적인 질서를 표상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것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며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 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¹⁰⁾

「기독교 강요」의 갈뱅의 창조에 관한 기록을 보면 인간의 창조가 모든 다른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현존케 하였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복을 위해서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능력으로 붙드시고 섭리로써 통치하시며, 그의 은혜로써 기르시며, 모든 축복을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문제는 인간의 완전성이나

8. Inst., I, xiv, 20.

9. 프랑수아 방델,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201쪽.

10. 갈뱅, 「창세기 주석」 창세기 1:26, 27.

존엄성에 창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시며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갈뱅은 전 창조의 목적을 능력과 은혜의 하나님을 인식하며 경외하는 데 두었다.¹¹⁾

1) 피조물로서의 인간

갈뱅의 인간론 이해에 있어 창조된 인간의 그 특징으로서 먼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갈뱅은 인간 창조론을 다룰 때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인간의 고귀성이며, 둘째, 인간의 피조성이며,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관계성에서 비롯된 의존성이다.¹²⁾

갈뱅은 "인간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수한 걸작이며 그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 그리고 선(善)이 깃들어 있다."¹³⁾고 보았다. 비엘레는 갈뱅의 이와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는 말로써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 그리고 그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¹⁴⁾고 말한다. 비엘레는 "인간은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 '하나님의 부관'과 같다는 갈뱅의 표현을 빌려 인간이 이 거대한 우주의 모든 자원을 탐구하고, 피조물이 인간에게 종속되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¹⁵⁾

하지만 갈뱅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 자신 안에 유한성을 가진 제한적 존재이다. 갈뱅은 언제나 신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깊이 인식했다. 이에 대해 갈뱅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11. 니이젤, 「칼빈의 신학」, 61쪽.

12.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p. 25.

13. Inst., I, xv, 1.

14. 앙드레 비엘레,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9쪽.

15. 위의 책, 29쪽.

인간은 자신의 완전성 속에서도 언제나 열등한 존재이다. 그는 자신의 완전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 하나님은 인간을 무한히 능가하는 분이다. 그의 존엄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다. 그러므로 존엄하고, 지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인간은 다가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따라서 타락 이전의 인간들조차도 그렇게 존엄하지 않고, 지고하지 않아서 언제나 자신 안에서 하나의 한계와 유한성을 느낀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참으로 자신 안에 하나의 결핍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그것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제한적 존재이다.¹⁶⁾

피조된 인간의 또다른 특성은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다. 갈뱅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아담은 비록 '창조의 걸작품'으로서 충분한 모든 축복과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항구성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인내의 덕목을 주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하나님만의 내밀한 계획 속에 숨겨져 있으므로, 우리의 과제는 겸손함 가운데서 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하는 데 있다.¹⁷⁾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인내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완전한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인간은 근원적인 한계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 그는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이다.¹⁸⁾

16. Inst., I. xiv. 5.

17. Inst., I. v. 2-3.

18. 이오갑, "인간론," 「칼빈 신학해설」, 179쪽.

2)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은사를 내리셨는데, 그 중에서 갈뱅이 특히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imago)과 모양(ymago)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갈뱅은 이렇게 주장한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모습(intégrité)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때 아담은 올바른 이해를 고스란히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때 그의 감정(affection)은 이성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모든 감각은 올바르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탁월성을 진정으로 조물주께로부터 부여받은 선물로 받아들였다.¹⁹⁾

갈뱅이 위의 정의에서 추구한 것은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다. 그런데 이 형상은 사람을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하고 있다. 창조 때의 아담에게는 지성(mind)의 빛과 마음(heart)의 똑바름(uprightness)이 있었다. 다시 말해 아담의 지력(intellect)은 분명했으며 감정은 지성에 적당하게 종속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앞의 인용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담을 통해서 보여 준 인간의 완전한 본성,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았던 진정한 삶, 그리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맺었던 올바른 관계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²⁰⁾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정신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가시적이었던 점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 속에 새겨 넣으신 자신의 유사함의 특징들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²¹⁾

이수영은 갈뱅의 하나님 형상 이해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19. Inst., I. xv. 3.

20. Inst., I. xv. 4.

21. Inst., I. xv. 3.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본래적 모습을 가장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로써 육체와 정신, 지각에서 마음에 이르기까지의 전인적 요소에 있어서의 순전성(intégrit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²²⁾ 토렌스는 갈뱅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를 인간의 본성적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친근한 임재에 대한, 특별한 관계에 근거한 인간의 응답으로 해석했다.²³⁾ 니이젤 역시 토렌스와 비슷한 해석을 했다. 갈뱅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태도 또는 자유 및 올바른 관계로서 파악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몸과 영혼에 신적 본질의 불꽃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관계로서 파악했다. 그래서 갈뱅의 하나님 형상관을 태초의 상태에서부터 정의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인류의 타락과 연결시켜,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의미는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²⁴⁾

하나님 형상의 좌소에 대해 갈뱅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좌소가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는 육체 자체에도 그 광채의 열마가 빛나지 않는 곳은 없다.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흔적들은 세계 도처에서 빛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인간을 모든 다른 피조물 이상으로 높이는 것, 곧 인간을 범속(凡俗)에서 구별하는 무언의 대조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²⁵⁾

그러나 갈뱅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 형상의 본래의 좌소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외부적 특성에서 보여지고, 또 번쩍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갈뱅은 말하고 있다.²⁶⁾

게리쉬(Brian A. Gerrish)는 갈뱅의 또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 형상의 좌소를 말해 준다. 즉,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곳은 재능뿐 아니라 관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형상’을 인간 개인의 속성으로만 정의하지 않고 형상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즉, 신성의 본질과 인간성의 본질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한다고 갈뱅의 ‘형상관’을 해석한다.²⁷⁾ 더 나아가 토렌스는 ‘창조로서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갈뱅의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를 더 넓은 지평으로 이끌어 간다. 즉, 그 ‘형상’이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와 관련된다는 것이다.²⁸⁾

토렌스는 갈뱅의 하나님의 형상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첫째, 일반적인 의미로 모든 창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로서 반영하는 것이며, 둘째 구체적인 의미로서 인간에게 특별히 존재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적으로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로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²⁹⁾

3. 타락한 인간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증거

22. 이수영, “갈뱅의 인간론”, 118쪽.

23. T. F.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p. 73.

24. 니이젤, 「칼빈의 신학」, 64-65쪽.

25. 위의 책.

26. 니이젤, 「칼빈의 신학」, 64-65쪽.

27. Brian A. Gerrish, “The Mirror of God's Goodness: A Key Metaphor in Calvin's View of Man,” *Reading in Calvin's Theology*, ed. Donald K. McKim, p. 108,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추는 거울,” 「칼빈 신학의 이해」, 148쪽에서 재인용.

28. Torrance, *Calvin's Doctrine of Man*, p. 35.

29. 위의 책.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고찰할 때 죄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실로 이 죄의 문제는 인간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신학 전체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과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죄에 관한 이해는 곧 구원의 이해와 직결될 뿐더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 관계를 밝혀 주고 있기 때문이다.

칼뱅은 원죄를 일컬어 “원죄란 영혼의 모든 부분에 고루 퍼져 있는 인간 본성의 왜곡과 부패이다.”³⁰⁾라고 말한다.

원죄란 그에게는 곧 아담의 타락의 역사이다.³¹⁾ 칼뱅은 아담의 죄를 탐욕스런 무절제로 보기보다는 교만이 모든 악의 시작임을 밝힌다.

칼뱅은 아담의 타락 역사를 통하여 타락의 근본 원인을 말한다. 곧 하나님께 대한 아담의 불성실(unfaithfulness)이 타락의 뿌리였으며 거기에서 야심과 교만이 배은망덕과 함께 일어났던 것이다. 이는 아담이 자신에게 허락된 것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그에게 넘치도록 부여된 하나님의 위대한 하사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³²⁾

칼뱅은 원죄를 영혼의 모든 부분에 고루 퍼져 있는 인간 본성의 왜곡과 부패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 원죄란 단지 원래적 의(original righteousness)만 잃은 상태가 아니다. 인간 본성에 있어 모든 선(善)이 사라진 상태이고 모든 악이 가득 들어와 있는 상태이며 그 악(惡)은 한 가하게 있지 않는다고 했다. “악은 화염과 불꽃을 일으키는 달아오른 용광로 같고 혹은 끊임없이 물을 내뿜는 샘과 같다.”³³⁾고 비유했다. 이처럼 죄는 인간 속에서 적극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이다. 의지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상태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의 유전으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라고 칼뱅은 말하고 있다.³⁴⁾

30. Inst., II, i, 8.

31. Inst., II, i, 4.

32. Inst., II, i, 4.

33. Inst., II, i, 4.

칼뱅은 더 나아가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한다. 즉, “우리는 원죄의 손상이 인간의 어떤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³⁵⁾고 말함으로써 칼뱅은 인간 부패의 전적 부패를 상기시킨다. 전적 부패란 죄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영적으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부패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소지니안주의자들과 17세기의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같은 전적 부패를 부인했으나 칼뱅은 죄의 유전으로 인한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강조했다. 필만도 “전적 부패는 곧 전적 무능력”³⁶⁾이라고 말했다. 결국 칼뱅의 견해를 필만도 따르고 인정할 것을 볼 수 있다.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는가? 죄인도 하나님의 형상인가? 이와 같은 물음을 갖고 우리는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 형상의 변형된 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창조된 인간 안에서의 영혼의 기능은 인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다. 타락 후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칼뱅은 다음과 같이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에 의해 전적으로 폐기된 것(annihilated)이 아니라 무서우리만치 그 형체가 알아보기 힘들게 기형이(deformed)되었다.”³⁷⁾ 그러나 다른 한편 칼뱅은 “타락한 인간성의 다양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의

34. Inst., II, ii, 1.

35. 나이젤, 「칼빈의 신학」, 76쪽.

36. H. G. Pöhlmann, *Abriß der Dogmatik*, 465쪽. 그가 말하는 전적 무능력이라 함은 첫째,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아무리 작은 행위일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에 반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둘째, 그는 근본적으로 죄와 자아를 선호하는 태도를 바꿀 수 없으며, 그 같은 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조차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

37. Inst., I, xv, 4.

남아 있는 자취(notch)를 보게 된다. 바로 이 자취가 인류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다.”³⁸⁾라고 밝혔다. 갈뱅은 이러한 자취를 하나님 형상의 흔적(lineation)³⁹⁾ 혹은 잔여물(remnants)⁴⁰⁾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갈뱅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 형상의 잔여물과 자취들을 보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동료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함으로써 더욱이 그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대우하도록 우리를 독려한다.⁴¹⁾

그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형상의 흔적에 있어서 무형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다. 자연적 인간의 본성에 남아 있는 빛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바, 하나는 모든 인간에게 심겨진 종교의 씨앗이며 다른 하나는 그들 양심 가운데 새겨진 선악(善惡)에 대한 분별력이라고 했다.⁴²⁾ 이 종교의 씨앗은 자연적 인간이 본능적으로 타고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며, 이러한 종교의 씨앗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⁴³⁾ 베르카우어는 ‘잔재물’이나 ‘씨앗’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들은 인간 속에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어떤 보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부패의 힘에도 이탈(離脫)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즉, 죄 때문에 인간은 불순종과 적의와 반역과 소외 속에서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간도 역시 인간이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부여된 재능을 떠날 수 없다. 따라

38. Inst., I, xv, 6.

39. 갈뱅, 「창세기 주석」 창세기 1:26.

40. 갈뱅, 「창세기 주석」 창세기 9:6.

41. Inst., III, vii, 6.

42. 갈뱅, 「요한복음 주석」 요한복음 1:5.

43. Inst., I, iii, 1.

서 이상의 잔재물(remnants)의 개념은 죄의 힘에 의해, 부여받은 재능이나 능력이 감속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 구원과 일치하는 부분 타락도 아니며,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외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에 있어 갈뱅의 가르침의 요점은, 첫째 인간 속의 하나님의 형상에 미친 타락의 파괴적 결과들은 인간은 단지 무엇인가를 박탈당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가 부패한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의 본성 전체가 너무나 타락되었으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 의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죄 짓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둘째,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유하고 있다.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뿌려 놓으신 종교적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어거스틴은 ‘갈망’이라고 표현했다. “이 갈망은 진정한 자신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다. 이 갈망은 악인에게도 소멸되지 않고 고동친다. 이 갈망은 그를 비참함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로 불러들인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⁴⁵⁾ 고 임영수는 그의 설교에서 말했다. 이 점은 갈뱅의 신학과 윤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갈뱅이 보고 있는 전인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무서울 만큼 기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는 구원론적, 성령론적이며 기독교론적인 강조가 갈뱅에게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⁴⁶⁾

갈뱅은 의지를 중요한 신학적 문제로 다룬다. 왜냐하면 의지는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44. 최윤배, “G. C. Berkouwer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 112쪽.

45. “죄 아래 있는 인간”(롬 3:9-18), 임영수 목사 설교(2003. 8. 24.)

46. 최윤배, “복음주의 신학,”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5-1학기 강의안, 23쪽.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지각의 명석함'과 '마음의 곧음', 곧 이성의 명쾌함과 의지의 올바름을 주셨다.⁴⁷⁾ 그는 선과 악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부여받은 것이다. 아담은 그가 원하기만 했었다면 타락하지 않은 채 본래대로 있을 수 있었다.⁴⁸⁾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사역의 위대성, 특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법칙과 질서에만 얽매어 있는 동물, 식물, 천체나 모든 무생물과 확연히 다르게 창조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과 같이 자유를 지닌 자발적 존재, 책임적 존재, 자신의 파트너로 창조하신 것이다. 자유의지는 바로 그 점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그 자신이 판단과 의지의 주체가 된다.⁴⁹⁾

이제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선택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해 버린 것이다. 즉, 자유의지가 노예적 의지로 전락해 버렸다는 말이다.

자유의지의 상실 곧 노예의지는 죄의 주된 징표요, 주된 징별로 주장된다. 죄 지은 후에 인간의 의지는 이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추구 속에 있다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으로부터 도피 속에 있다. 인간은 이제 선을 갈망할 수는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참고, 사 47:14).

나이젤은 칼뱅의 전집을 통하여 나타난 칼뱅이 보고 있는 범죄의 자의성과 필연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바, "인간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서도 타락 이후로는 자유의지로서는 죄 짓는 일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죄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장하

47. Inst., I. xv. 3.

48. Inst., I. xv. 8.

49. 위의 책.

고 있는 죄악성이 우리를 그리로 집어넣기 때문이다."⁵⁰⁾라고 말한다. 이것은 곧 의지의 노예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이 택했고 항상 추구해 마지않는 노예성인 것이다.⁵¹⁾ 여기서 범죄와 타락의 책임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잘못 사용한 인간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4. 회복된 인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또한 회복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몰트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은사인 동시에 과제이며, 서술인 동시에 명령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과제인 동시에 희망이요,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다."⁵²⁾라고 말한다. 동일한 의미로 베르카우어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은 찬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선물이다."⁵³⁾라고 표현한다.

갈뱅은 인간의 구원,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보며 인간 내부의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다.⁵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는 인간을 부분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한다. 동시에 이 새

50. C.R.(=갈뱅의 전집) 49, 128f. 나이젤, 「칼빈의 신학」 81쪽에서 재인용.

51. Inst., II. iii. 5.

52. Jürgen Moltmann, *Gott in der Schöpfung*, 김균진 역, 「창조 속에 계신 하나님」(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328쪽.

53. G. C. Berkouwer, MIG, p. 101, 최윤배, "Berkouwer의 하나님 형상 이해" 95쪽에서 재인용.

54. Inst., III. i. 1.

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⁵⁵⁾ 타락 이전 그 처음의 순전성(intégrité)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회복의 근거가 된다고 칼뱅은 말한다. 그리스도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방도로는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뜻이다.⁵⁶⁾

인간이 어디로부터 타락했는가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롭게 되고⁵⁷⁾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관계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며 따라서 회복되어 참된 경건과 의와 순수, 그리고 지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게 되기까지 회복된다. 즉, 우리가 상실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된다.”⁵⁸⁾

성령과의 사귄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맞볼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라고 칼뱅은 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그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2:6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하여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의 형상을 입어 그와 같이 하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는 우리의 맏형이 되신 것이다. 이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의 소유가 되고, 그것은 성령께서 시체와 같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심으로써 되는 일이다.⁵⁹⁾

55. Inst., III, i, 2.

56. 칼뱅, 「골로새서 주석」 골로새서 1:15.

57. Inst., I, xv, 4.

58. Inst., I, xv, 4.

59. 한철하, “칼빈 신학의 구원론적 이해와 복음사역의 중요성,”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5쪽.

성령이 비취질 때 우리에게는 예리한 통찰력이 생긴다. 이와 같이 성령은 하늘의 보고를 우리에게 열어 주는 열쇠라고 하겠다.⁶⁰⁾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신비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비로소 중생의 원천이 되는 인식론적 근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갈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화’를 ‘회개’와 ‘중생’으로 표현한다.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는 예수를 영접하는 단 일회적 사건을 ‘중생’으로, 중생한 뒤에 성도 안에서 일생동안 계속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성화’로 이해하지만 갈뱅은 일생 동안 거룩해지는 과정인 성화를 ‘중생’ 또는 넓은 의미의 ‘회개’로 이해한다.⁶¹⁾

중생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손상되고,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것이다.⁶²⁾ 갈뱅의 경우,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엡 4:24)이다.⁶³⁾

갈뱅에 의하면, 전향은 두 가지 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옛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새것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이다. 즉,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세상과 육을 포기하며 우리의 악한 욕심과 작별하고 심령으로 새로워지라는 명령을 받는다(엡 4:22-23).

칭의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의 의가 믿음에 의하여 우리의 의로 전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받을 만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갈뱅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칭의란 전가된 의로움이다.” 이 의로움은 질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것은 관

60. 위의 책.

61. 「기독교 강요」(1559) 제Ⅲ권 제3장의 제목은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 회개”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혁파 정통주의 용어로 바꾼다면 “믿음에 의한 우리의 성화”가 될 것이다.

62. Inst., III, iii, 9.

63. 위의 책.

계의 의로움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이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자비를 통해서이다.⁶⁴⁾

갈뱅은 특별히 칭의와 성화를 이중적 은혜(duplex gratia)라고 말했으며 칭의를 전가된 의(=객관적 의 : extra nos)로 보았고, 성화를 효과적인 의(in nobis=intra nos)라고 하여 구별하였다.⁶⁵⁾

성화의 근거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임을 밝힌다. 왜냐하면 형상회복에 있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인간의 성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중적인 은혜'(duplex gratia)로서 칭의와 성화는 상호 동일하지 않고, 상호 구별되나 상호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칭의'(justification)는 '전가된 의'(imputed righteousness)이고, '성화'(sanctification)는 '분여된 의'(imparted righteousness) 또는 '효과적인 의'라고 불려진다. "칭의 속에서는 죄책이 제거되고, 성화 속에서는 죄의 얼룩이 지워진다. 칭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게 만들고, 성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든다. 칭의는 새 신분을 수여하는 반면에 성화는 사람 안에 새 성격을 창조한다."⁶⁶⁾ 갈뱅의 경우 이처럼 칭의와 성화는 상호 구별되면서도, 상호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곧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말한다. 창조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본래적 은사의 회복을 일컫는다.

갈뱅이 이해한 성령 안에서 회복된 삶의 특징을 몇 가지로 열거해 보면, 첫째는 죽음에서 다시 얻게 된 새 생명을 들 수 있다. 새 생명은

64. 갈뱅, 「요한복음 주석」 요한복음 15 : 1.

65. 최윤배, 「칼빈 신학」, 19쪽.

66. 최윤배, "요한 칼빈의 구원론 :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학생회 편, 「루터 칼빈의 구원론 비교」(대전 : 도서출판 복음, 2002), 53쪽.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듭남이고(요 3 : 3, 요일 1 : 29), 사랑 안에서 살리고(고전 13장), 진리의 행함이며, 죽음으로부터 사망의 율김이다(요일 3 : 14). 새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점차 응답해 가며 공감한다.

둘째, 갈뱅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성화와 관련된다.⁶⁷⁾ 하나님의 형상과 신생아의 관계성, 즉 형상과 성화의 동일성은 분명하다.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주의 영광이 모든 이에게,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가시적이 되는 성화이다.⁶⁸⁾ 갈뱅은 그 가시적 성화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결과로써 말하고 있다. 갈뱅은 그것을 '자기 부정'이라고 말한다.⁶⁹⁾

자기부인은 회복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고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다른 측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셋째, 갈뱅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양자됨과 관계된다고 보았다. 창세기의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창 3 : 5)는 사단의 유혹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박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갈뱅은 중생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중생의 목적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순종의 조화와 그 선율을 알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주시는 양자됨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⁷⁰⁾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kenosis) 속에 나타난 사랑의 유비(analogia amoris)에 기초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전인에 관계되며,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지위와 인간의 미래 및 하늘 아버지의 양자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닮음과 관계된다.

넷째, 갈뱅에 의하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모방'과 관계된다. '그리스도의 모방'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한 모방인데, 이는

67. 갈뱅, 「골로새서 주석」 골로새서 3 : 5.

68. 최윤배, "G. C. Berkouwer의 하나님의 형상 이해", 100쪽.

69. Inst., III. vii. 2.

70. Inst., III. vi.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양자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⁷¹⁾ 양자됨 속에서 그리스도의 닮음은 겸손을 일깨워 준다. 빌립보서 2:6 이하에서 그리스도가 종의 형상을 입었음을 알고 있듯이, 신자의 닮음의 형태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닮음의 형태와 같이 섬김의 자세로 되어져 간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한 참 겸손을 배우게 된다.⁷²⁾

다섯째, 갈뱅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마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 곧 대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후 5:20). 이는 곧 이웃을 위한 사랑의 삶, 화목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사랑의 계명은 율법의 성취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일치요, 행동 자체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다.⁷³⁾ 이런 사랑의 유비는 인간과 같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kenosis)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기초를 이룬다고 갈뱅은 이야기 하고 있다.⁷⁴⁾

5. 결 론

갈뱅의 인간론은 그의 사상 속에서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인 면모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인간론은 신인식론과 창조론 가운데서, 죄론과 그리스도의 구속론에서, 나아가 성령론과 종말론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그는 인간을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을 배경으로 설교와 성서주석, 여러 신학 논문이나 저술, 그리고 심지어는 서간문 속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간론이 여러 양상을 지니고 있지만

71. Inst., III, vi, 1.

72. 갈뱅, 「빌립보서 주석」 빌립보서 2:6.

73. 갈뱅, 「로마서 주석」 로마서 13:8.

74. 갈뱅, 「빌립보서 주석」 빌립보서 2:5~11.

전체적으로 하나의 일관된 질서 속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갈뱅은 대부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으며,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그의 인간론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갈뱅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전인으로 보았다.

갈뱅에 따른 영혼은 하나의 본체이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어서 육체와 세상을 초월하여 그것들과 분리될 수 있다. 그것은 육체가 사멸한 후에도 살아 존재한다.

갈뱅의 영혼관은 헬라적 이원론과는 매우 다르다. 갈뱅은 영혼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영혼은 인간의 창조 시(혹은 수태 시)에 인간의 조상(彫像)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영원한 신적 본질로부터 유출된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또한 영혼은 불완전하다. 그것은 죄에 의해 왜곡된다. 갈뱅은 영혼을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기까지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미완성적인 본체로 간주했다. 여기서 영혼을 영원하고 신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신 플라톤주의와는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갈뱅은 '자유의지'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그에 따르면 창조된 인간은 자신의 통전성 속에서 자유의지를 갖는다. 흔히들 갈뱅은 자유의지를 부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갈뱅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 구원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공로뿐이다. 자유의지는 구속된 신자들의 중생과 함께 다시 태어나야 하고,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

갈뱅은 자유의지를 다루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은 창조의 완전성 혹은 위대성이다. 창조 시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

격체로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다음은 타락의 책임 소재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들어서 타락의 책임을 창조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갈뱅은 또한 인간이 자유의지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그것을 자신의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의 인간론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갈뱅의 하나님 형상관에 대해서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갈뱅은 하나님의 형상(μορφή, 켈렘)과 모양(εἰκόν, 페무트)을 일원론적으로 해석했다. 스콜라주의자들은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면서 전자는 본체로, 후자는 우연성이나 소질(quality)로 간주했다. 그러나 갈뱅은 모양(모습)이라는 말은 형상을 더 잘 나타내고자 부가된 혹은 반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둘째, 갈뱅의 하나님 형상론은 한편으로는 플라톤과 연관되어 있다. 그 이유는 갈뱅은 플라톤처럼 하나님 형상이 신실, 의(義), 거룩 속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신인식에 도달하여 신적인 질서와 그 모든 능력의 건강해짐을 경험하는 그런 영혼 속에서 실현됨을 보기 때문이다. 이 신적인 질서는 인간 내부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 말하자면 사회생활 및 정치에도 반영되는 것이 이 신지식의 자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⁷⁵⁾

셋째, 갈뱅의 경우, 인간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성과 의존성 속에서 살아가는 실존적이며 전인적 인간이라고 주장한다. 전인적이며 통전적인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둔 갈뱅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적인 것들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인간의 영성과 육체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전인에 관계시킨다.

넷째, 갈뱅은 인간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숭배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낳게 되는데, 이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질투로 나타난

다. 그 이유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고유한 자신의 위치를 지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료인간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자신에게 위임된 모든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형상금지 명령(출 20:4)은 수직적 관계에서는 우상숭배를 방지하게 되고, 수평적 관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보호와 관련된다.

다섯째, 갈뱅은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적 관점에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은사이지만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이룩해야 할 과제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의 이중적(二重的) 국면을 말해 준다.

여섯째, 갈뱅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의 특징은, 종말론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현재의 삶 속에서 구체성과 현실성을 띠게 되며, 각자의 소명과 사명과 연관되어, 개인의 실존적 차원은 물론 공동체에서도 이룩되어야 할 과제로서 사회적 형상 요소도 가지고 있다.

갈뱅의 하나님 형상에 대해 고찰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총인 동시에 또한 인간이 이루어야 할 특별한 과제이기도 하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창조는 다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은 그에게 약속과 명령으로 위임되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과 순종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바른 수직적 관계, 인간과의 바른 수평적 관계, 자연과의 바른 순환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총과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하나님 형상의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75. Inst., I, xv, 4.

참고문헌

-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 vol. II. 서울 : 연세대학교출판부, 1987.
-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서울 :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1997.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오갑. 「인간론」. 「칼빈 신학해설」.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이수영. 「인간론」. 「교리교육 지침서」.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이종성. 「갈뱅」.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1999.
- _____. 「神學的 人間學」. 서울 : 대한기독교출판사, 2003.
- 최운배 외 3인 공저.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교회의 유산」.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한국칼빈학회 편.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99.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Vol. 1. 권수경·이상원 역. 「별코프 조직신학」(상). 고양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0.
- Biéler, André.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성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3.
- Calvin, John.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 외 3인 공역. 「기독교 강요」(1559), 上·中·下,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88.
- _____. 「聖經註釋」. 서울 : 성서교재간행사, 1992.
- Göhler, Alfred. *Calvins Lehre von der Heiligung*. 유정우 역. 「칼빈의 성화론」.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 Hoekema Anthony A. *Created God's Image*. 류호준 역. 「개혁주의 인간론」. 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Niesel, W. *Die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3.
- Parker, T. H. L. *Calvin :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역. 「칼빈 신학 입문」. 고양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 Pöhlmann, Horst G. *Abriß der Dogmatik*. 이신건 역. 「교의학」.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89.

- Wendel, François. *Calvin : Sources et 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 김재성 역. 「칼빈 :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9.